

# “뭐든 가능한 라스베이거스를 보라”

## 김문수 경기도지사 미국 6개 도시 순회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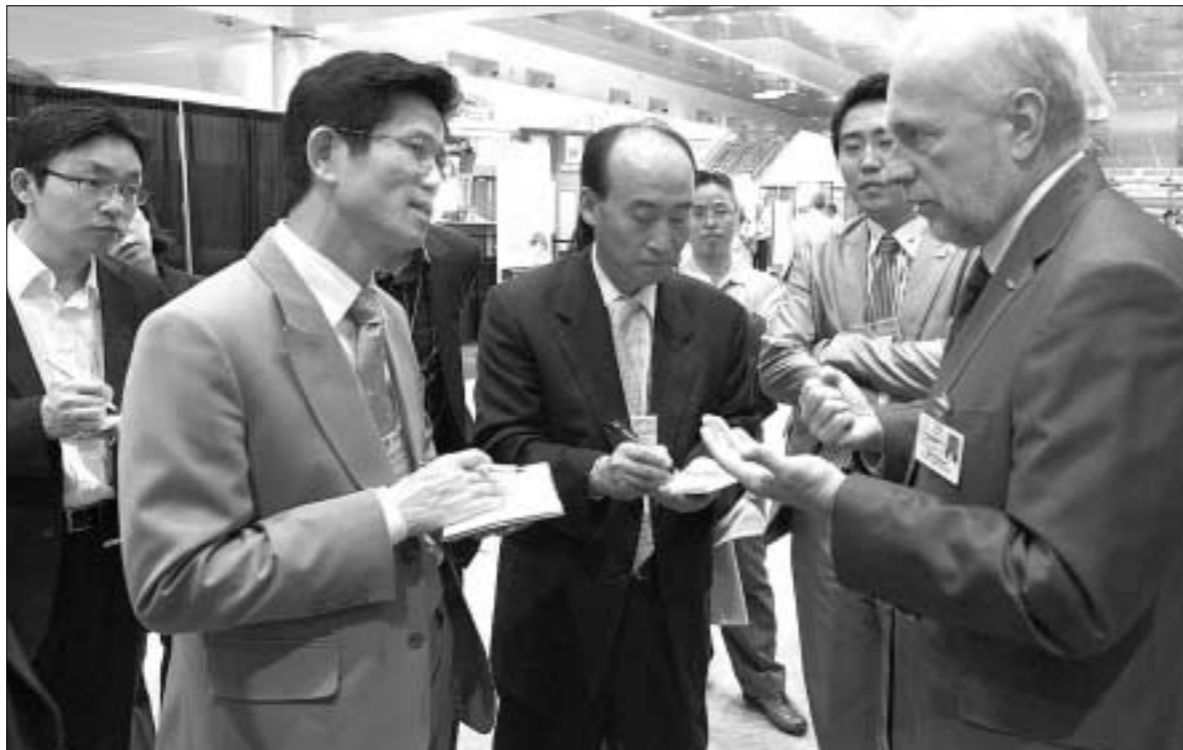
미국 6개 도시를 순회방문중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0월29일 라스베이거스의 독창적인 시설과 운영의 벤치마킹에 나섰다.

김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대표단은 베네치아호텔 등 도심형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세계최대 규모의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를 차례로 시찰하고, 행정적 규제나 구속 없이 펼쳐진 독특한 건축방식과 넘치는 아이디어 수집에 구슬땀을 흘렸다.

베네치아호텔은 벨라지오, 시저스패리스, MGM호텔 등 라스베이거스의 도심형 엔터테인먼트를 이끄는 곳으로 베네치아를 재현해 낸 하늘, 건물, 배, 조각상 등 시설물이 특징이다.

호텔과 주변 건물의 시설을 둘러본 김 지사는 “벽면의 문양과 전시된 조각품들 하나 하나가 모두 개성 만점이다. 하다 못해 주변 조경의 나무 한 그루도 모두 다르다”며 “이런 다양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규제, 특히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거듭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두바이, 중국, 라스베이거스 모두 세계최고가 되기 위해 다양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데 반해 우리 권역특성으로 획일화된 정책으로 하향평준화를 택하고 있는게 문제”라며 “주변의 나라들을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느낄 만한 상식적인 문제인데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김학천, 최규진 경기도의회 의원들 도대표단들과 함께 10월2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시찰한 후 콘비스프 국제담당부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총면적 29만7천600㎡, 전시장면적 18만4천389㎡의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는 세계 최대규모 전시장으로 민간이 절반씩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센터의 확충공사 중인 가운데, 중앙 예산은 라스베이거스 소재 호텔의 숙박료 가운데 10%를 컨벤션 기금으로 받아 운영된다. 총 연매출 7천500만 달러 규모다.

그러나 컨벤션센터 자체는 적자다. 9.11테러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하다 지난해에만 흑자를 기록했을 만큼 흑자운영보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 수 있는 기반 시설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지사는 “컨벤션센터는 물론 이곳을 지나는 모노레일 등 부대시설들도 대부분 적자지만 도시를 이

루는 시설 모두가 네트워크화 되어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데 일조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의 경우에도 주변의 규제를 대폭 풀어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해당 지역과 킨텍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다양한 福祉사업으로 지역의和諧 다져

## 장암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5주년 장암마을 축제

의정부시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15주년을 기념 장암마을 축제가 10월19일 오후1시30분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앞 주차장에서 1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극단 함께 하는 세상이 출현해 피리 밝힌 호랑이의 마당극 공연이 펼쳐졌다.

장암 뽕내기 한마당에서는 노래자랑과 요들, 발레,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다양하게 주민들의 숨은 끼를 뽐내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풍물과 박터트리기 등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 시간도 가졌다.

행사 참가 시민들을 위해 우울증, 스트레스 등을 검사, 상담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검사를 운영했으며, 의류, 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의정부시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15주년을 기념 장암마을축제가 10월19일 오후1시30분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앞 주차장에서 1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구매했 수 있는 물품장터도 열렸다.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공연

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화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京畿道 한국지방자치대상 2관왕

##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국제화 등 2개 분야에서

경기도는 한국언론인포럼과 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07 전국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국제화 등 2개 분야에서 大賞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한 2007년도 역점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수상단체 선정은 대

학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의 서면심사와 전문리서치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10월 26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수상자단체의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유철 정부부지사가 도시사를 대신해 수상했다.



경기도는 한국언론인포럼과 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07 전국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국제화 등 2개 분야에서 大賞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대賞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경영진단 및 행정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지자체별 특성화 부각, 브랜드화 촉진 등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신장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언론인포럼과 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 공동 주관하여 2005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는 지자체 평가 대표적인 기관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서울북부 교통의 대동맥 의정부시

## 12월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완전개통으로

의정부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서울 북부 교통의 대동맥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인 송추IC-의정부IC구간 7.5km가 오는 12월말 완전 개통되고, 지난 7월 27일 기공식을 가진 의정부경전철이 오는 2011년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이 편리해 진다.

서울과 포천을 잇는 고속도로도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이르면 내년 말께 착공에 들어가 의정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국도대체도로와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을 비롯해 주유도로 확장 공사도 시의 기치를 올려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가 개통되면 경기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한 도로가 완성돼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교통 문제가 일부 해결되고 주변 택지개발지구와 함께 경기북부 개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교통난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경제 대동맥 역할을 맡게되며, 본격적인 경기북부시대가 개막될 것이다.

한편, 시는 신곡동 발곡 정거장에서 의정부시청을 거쳐 용현동 탐석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11.1km의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기공식을 지난 7월26일 가진데 이어 10월15일 공구별로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이번에 기공 및 착공을 한 의정부경전철은 2011년 개통될 예정으로 4천750여명이 소요되며, 발곡역-회룡-범골-의정부역-시청-홍신-중앙-동오-새말-경기도제2청사-효자-근제-어룡-송산-탐석-차량기지 등 총15개 정거장 11.1km를 잇게 된다.

특히 회룡역에는 지하철 1호선과 환승할 수 있고, 탐석역에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운행하는 수도권 급행간선버스(BRT)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전철이 2011년 개통되며, 용현동 탐석에서 경원선 회룡역까지 18분이 소요된다. 의정부시청을 2량 1편성으로 구성되며, 1편성당 236명 수송이 가능하고 하루최대 15만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게 되는 완전 자동무인운전으로 독일의 VAL208 차량 및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복 4-6차로로 IC 10곳이 설치되며 의정부, 남양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를 지나 강변북로와 만나게 돼 교통량이 분산될 뿐 아니라 더욱 편리한 교통망을 형성하게 된다.

이외에도 시는 장암동 동부순환도로-자금동 양주시계 국도대체 우회도로(8.1km구간, 2009년 12월 개실)와 장암동 서울시계-장암IC까지 동부간선도로확장(4.1km구간, 2010년 12월 개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 가동 수원시-양주시 장흥동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1.7km구간, 2009년 12월 개통)공사와 신곡동 신곡고가-자일동 포천시계 국도43호선 확장(5.41km 구간, 2008년 8월 개통)공사, 용현동 영석고-용현동 용현지방산업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0.76km 구간, 2009년 12월 개통)공사, 신흥고-회룡2교간 도로 개설(0.5km 구간, 2008년 12월 개통)공사, 회룡역-신후로를 연결하는 호원동 중로1-13호선 신실(250M, 2007년 12월 개통)등 시내·외를 연결하는 각종 기반시설이 마련된다.

의정부시가 군사도시 이미지가 사라지고 누구나 살고 싶은 녹색도시로 변모될 예정이어서 주거기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정부 뉴타운조성과 민락 2·3지구, 장암·상계지구, 양주 옥정지구, 회천지구, 마전지구, 광석지구 등 7개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2013년까지 21만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토뉴스

# 중동문화인문사절단 43명 초청 경기도 알리기

김문수 도지사는 10월25일 호 텔게스에서 카타르 왕자가 포함된 중동문화인문사절단 43명

을 초청, 경기도 알리기 행사를 가졌다.



# 제8회 경기벤처기업인의 날 기념식

10월25일 수원 호텔 리츠에서 제8회 경기벤처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참

석,우소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을 축하했다.

# 수출장벽 S마크로 넘는다

## (주) 하이로드 제 5000호 안전인증서 획득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지난 10월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소재한 (주)하이로드에서 박길상대표 등 회사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동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유압식 고소작업대(추락재해 예방 작업장비)에 대하여 제 5000호 안전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 5,000호 인증을 받은 (주)하이로드의 유압식 고소작업대는 사업장 및 빌딩 등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로 그동안 공단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주)하이로드는 국내 최초로 이동식 고소작업대를 개발한 기업으로 그동안 공단으로부터 총 19개 모델에 대한 S마크 인증과 13개 모델에 대해 CE마크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일

본, 미국 등 세계 3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박길상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제품의 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안전인증을 통해 안전한 제품의 제조·유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지난 22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소재한 (주)하이로드에서 동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유압식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제 5000호 안전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 獨居어르신 위한 흥겨운 잔치 한마당

## 의정부시 가능3동 청·장년회 400여명 초대



의정부시 가능3동 청·장년회와 자원봉사단체는 독거 어르신들을 모시고 즐거운 잔치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의정부시 가능3동 청·장년회와 자원봉사단체는 독거 어르신들을 모시고 즐거운 잔치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날 토끼놀이터에 주민과 어르신 등 400여명이 모여 각같이 타령, 정선타령 등의 민요와 어르신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흥겨운 한마당 행사를 즐겼다.

한마당 행사는 청·장년회와 자원봉사대원들이 일년 동안 회비를 꾸준히 모아 기금을 조성해 떡, 고기, 국밥 등 푸짐한 음식을 준비했다.

조성춘 청·장년회장은 “타 등에 비해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즐겁게 노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며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이미숙의 전통춤이야기 ㉔ 승무(僧舞)

## 충남 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춤

승무(僧舞)는 2000년11월1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춤이다. 승무는 승복을 입고 추는 춤이어서 중춤이라 하나 불교의식에서 승려가 추는 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춤 가운데 하나이다.

승무는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걸치고, 백옥 같은 고깔과 버선코가 유난히 돋보이는 차림으로 열불, 도드리, 타령, 굿거리, 자진모리 등 장단의 변화에 따라 춤을 춘다. 소매자락을 뿌리는 동작이나 휘날리게 하는 팔 동작은 매우 특이하며, 반주로는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북이 사용된다.

우 우수한 춤이다. 현재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심화영씨가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문의: 의정부사무동단 031-877-8891 이미지단장